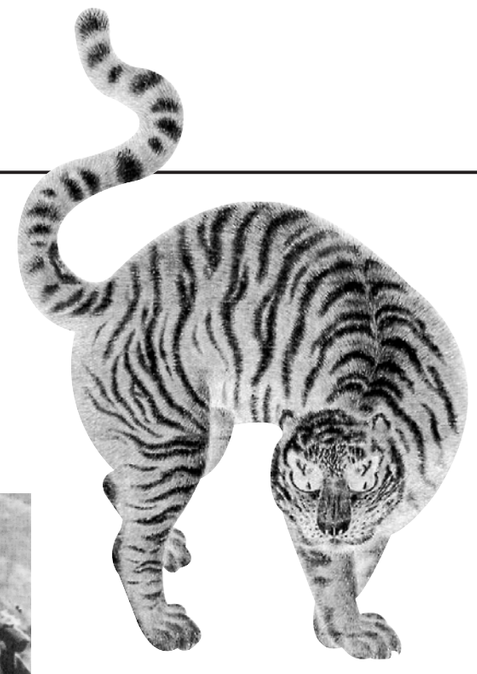
호랑이·외적 물리치고 백성 구한 잊혀진 영웅들 '산포수'



산척, 조선의 사냥꾼

이희근 지음

"사냥꾼들은 먹지 않고서도 언제까지나 걸을 수 있었으며, 탁월한 숲속의 사람들이며, 낡은 화승총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미국 외교관 윌리엄 샌즈는 '호랑이 사냥꾼'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조선시대 호환(虎患)은 요즘의 교통사고만큼이나 흔했다. 동네 우물가는 물론 군사들이 겹겹으로 지키는 구중 궁궐에도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였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영조 10년(1734년)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호환으로 팔도에서 죽은 자가 모두 140인이었다. 조선시대에 호랑이는 '공공의 적 1호'였다. 자연히 호랑이 사냥꾼인 '산척'(山尺)이 필요했다. 이들은 호랑이·표범·곰 등 맹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수호자이기도 했다.

이희근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최근 펴낸 '산척, 조선의 사냥꾼'은 한국사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산척'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오디세이다.

'호랑이와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잊힌 영웅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조선시대 직업 사냥꾼 '산척'이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고 잊힌 존재가 됐는지를 파헤쳐 나간다.

'산척'은 호랑이 포획을 생업으로 삼는 사냥꾼이면서 전쟁때에는 나라의 수호자였다. 화승총을 어깨에 올리고 장죽을 물고 있는 구한말 호랑이 사냥꾼들. 〈따비 제공〉

사냥을 생계수단으로 삼은 직업 사냥꾼인 '산척'의 뿌리는 백정에 닿는다. 법제상 양민이었으나 천민 대접을 받았던 백정은 주로 도축업을 했으나 일부는 늘 사냥만 했다. 이들이 '산척', '산행 포수'(산포수)이다. 산척은 조선 초에 목궁(木弓)이나 쇠뇌로 사냥을 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조총(鳥銃)으로 사냥 무기를 바꾼다.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들이 조선의 공식 문서인 실록에 남게 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쟁 때문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병자호란 때는 호위 무사로, 병인양요·신미양요 때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벌벌 떨게 한 전투병으로 활약했다. 위정자들이 이들을 전쟁 때마다 동원한 것은 평소 사냥으로 활쏘기와 사격 등이 뛰어난데다 탁월한 무예실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조선 호랑이와 산척이 왜 한반도에서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 속에 숨어 있다. 조선을 침탈한 일제는 1907년 8월 한국군을 해산시킨데 이어 9월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시행한다. 항일 의병의 핵심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포수의 의병참여를 원천 봉쇄해 무장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홍범도 등 포수들은 의병부대를 조직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한다.

호랑이가 구한말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일제의 지속적인 호랑이 포획작전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호랑이 가죽 수요가 공급에 비해 크게 증가한 '시장의 힘'이었다. 책을 읽다 보면 영화 '대호'에서 지리산 호랑이를 지키고자 하는 조선 최고 산행포수인 '천만덕'(최민식 역)의 고뇌와 분노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따비·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감정의 재발견='감정'에 대한 인문학적이고도 과학적인 물음과 성찰을 우리의 현실적 경험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책. 뇌 신경과학자인 조반니 프라체토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본 에세이 같은 인문심리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다. 해답을 찾기 위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동시에 과학적이고 사회문화적 시선이 담겨 있는 전개방식은 독자들에게 지적 유희를 선사한다. 〈프런티어·1만5000원〉

▲사라바 1·2=사람에 대한 애정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작가 니시 가나코의 장편소설. 데뷔 10주년 기념작 '사라바'는 주인공 아유무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서른일곱 살인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반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소설은 삶이란 흔들리고 부유하는 궤적임을, 이렇게 흔들리는 삶에서 때로 넘어지는 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찾고 있는 것을 향해 내딛는 착실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멋지게 그려낸다. 〈은행나무·1만3800원〉

▲네이밍 사전=세계의 10개 언어에서 찾아낸 1만5000여 어휘를 담아내 웹툰, 블로깅, 소설, 시나리오, 희곡, 애니메이션, 게임 시나리오 등의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네이밍 찾기에 최적화한 사전. 책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를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뒷부분에 배치한 언어별 찾아보기는 표제어를 각 언어별로 정리해 신선함과 색다름을 찾는 창작가들의 기대에 도움을 준다. 〈보누스·1만1500원〉

▲오른손이 아픈 날=시력 40년을 맞이한 김광규의 열한번째 시집. 시인은 1975년 계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한 이래, 맑은 눈으로 현실을 관찰해 성찰하고 명료하게 다듬어내 시에 투영해왔다. 2011년 여름 종심(從心·일흔 살)을 맞이한 시인이 2015년 가을까지 4년 동안 바라본 세상과 기억들, 앞서 보낸 동료들에 대한 애도와 담담한 내일 맞이가 담긴 66편의 작품들을 총 4부로 나눠 묶은 이번 시집에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우러나는 시인 특유의 관조가 돋보인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정신의학의 탄생=200년 정신의학의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진실을 쉽게 풀어낸 책. 사회 문제와 정신의학의 접점을 찾아온 건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가 네이버캐스트에 '정신의학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1월부터 총 42회 연재된 내용을 묶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갈등한 환자들의 고투가 인류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고자 한 치료자들의 분투와 맞닿은 의학의 교차점을 다루고 있다. 〈해냄·1만9800원〉

곁에 두고 하나씩 꺼내 읽으면 좋을 '고사성어 100개'

옛 사람이 건넨 네글자

정민 지음

당나라 재상 소미도는 측천무후 섭정기 전후로 세 차례 걸쳐 7년간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구당서'(舊唐書)에는 그가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이 나온다. "일처리는 명백하게 결단하려 하지 말게. 만약 착오라도 있게 되면 반드시 견책을 입어 쫓겨나게 되지. 그저 모서리를 문지르며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좋다네."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스스로 입지를 좁히지 말고 양다리를 걸쳐 놓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잡는 것이 처세의 요령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유래된 게 '모릉구용'(摸稜苟容)이다. '모서리를 어루만지며 구차하게 용납되려 한다'는 뜻이다. 이런 류의 사람이 활개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 회초리 같은 말이다.

옛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알려온 한문학자 정민 교수가 펴낸 '옛 사람이 건넨 네글자'는 고전에서 뽑은 '사자성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슴에 새길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번 작업이 '차고술금'(借古述今), 즉 '옛일에서 빌려와 지금을 말하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책을 읽다 음미할 만한 옛일을 메모해 두면 꼭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와 똑같은 현실이 벌어졌다"며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황폐해져버린 세상에선 앞이 캄캄하면 안 보이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책에는 '마음 다스르기', '세간의 흥정', '내려놓기의 기쁨', '숫자로 세상 읽기' 등 네개 부문으로 나눠 모두 100개의 고사성어가 실려 있다.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멋대로 파헤쳐져 버린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의 사례를 설명하며 차용한 사자성어는 '탐득과수'(貪得寡羞)다. '지금 세상은 나무람을 잘참고 욕됨을 가벼이 보벼 얻기만을 탐하면서 부끄러움은 적다' 는 내용을 담은 '회남자'에서 따온 말이다. 누가 욕해도 내게 이익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고, 돈이 된다는 데 그깟 부끄러움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들을 질책하는 글에 뜨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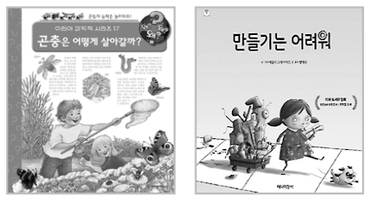
차와 관련한 문서에서 인용한 '고구만감'(苦口晩甘)을 통해서는 "사람도 차맛과 다를 게 없다"며 "처음에는 조금 맛이 쓴 듯해도 겪고 보면 길게 여운이 남는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한꺼번에 읽어도 좋지만 곁에 두고 하나씩 꺼내 읽는 것도 괜찮을듯 싶다. 저자의 말처럼 옛날이 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왜소해지고 게다가 야비해져서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세상"에서 따끔한 일침이다.

〈휴머니스트·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곤충은 어떻게 살아갈까?=곤충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세계를 어린이들이 알기 쉽도록 풀이했다. 곤충의 성장 과정을 비롯해 곤충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까지 알 수 있다. 흥미로운 내용과 재밌는 설명으로 곤충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고 자연 과학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크레용하우스·1만5000원〉

▲만들기는 어려워=멋진 발명을 꿈꾸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시행착오를 거치며 느끼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려준다. 한글판과 영어판을 함께 구성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디오북,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창비·1만3500원〉

▲장미산성과 보련산성=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야기, 옥황상제가 살았던 그 시대로 찾아가는 전설 시리즈. 장미산성과 보련산성 전설은 남아선호 사상의 이야기다. 딸이라서 목숨까지 잃어야하는 보련이와 아들이라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장미 이야기를 '차별'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다룬다. 〈파란하늘·1만800원〉

▲똑똑이의 만능팔='내가 할 일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린 그림책. 똑똑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능팔을 만들었다. 만능팔이 늘어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어느 날, 백개의 만능팔이 모두 멈추고 그제야 똑똑이는 만능팔이 해놓은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리틀씨앤톡·1만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자연꽃간장게장한정식(문화전당점)
동구 대의동 33번지
보리굴비정식, 버섯불고기정식, 자연꽃 한상정식
비지니스, 상견례 각종단체모임
대표 임승연 ☎225-7117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동구 광산동 56번지 2층~3층
수익형 빌딩, 프랜차이즈, 토지, 상가
매매 및 임대
대표 주승일 ☎227-2249, 010-3605-5571

화필여로
동구 궁동 35-10번지
오곡 쌈밥 전문
단체 모임 예약
대표 홍행남 ☎222-7268

해 뜨 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등어 구이 정식, 묵은지 등 뼈찜
묵은지 고등어 말이, 고추장 양념구이
(야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010-2611-7687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짱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궁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대박당구클럽
북구 각화동 주공@정문옆 2층 (구,백제당구장)
최신형 헐리우드 열선 다이설치 완비
국제식 대대 설치보유, 쾌적한 공간 최대의 서비스
초보자 일대일 사장님 개인지도
☎010-3637-9123

혜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뷰장례식장)
대표 이성희 ☎010-8542-3366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자수 수선
한복수, 마크수, 헌옷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자수
대표 고진순 ☎010-8261-5205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의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뚱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샤브샤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한마음축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르로제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옆)
꽃향기 감촉 설렘이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오리나라만세
북구 중흥동 333-26번지
(전대정문에서 50미터 지점)
약오리, 옻오리, 오리탕, 오리주물럭,
오리로스구이, 아구찜, 아구탕
☎062)522-7333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